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0. 여호와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더위를 몰아내는 시원한 빗줄기처럼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에 은총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아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슴에 슬며시 찾아와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라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은 어느새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내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온 힘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주님,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딘가에 그 짐을 부려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무거운 것은 못난 우리의 자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꼬리를 틀고 있는 아집과 위선과 교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의 칼날로 베어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에 찬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16. 시편 63 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유경순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50. 자비하신 예수여 다함께

성경봉독 I. 눅5:1-11 인도자

II. 눅9:51-56 권미정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맘 한 자리부터 김재흥 목사

II. 물처럼, 바람처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을 벗어 던지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 삶에 지친 이들의 가슴에 하늘의 생기와 기쁨을 가져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 주님만을 우리 존재를 모을 구심점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떨림과 기쁨으로 마음을 여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기도 : 구명자 권사	기도 : 이춘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김현영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최철수	배상순	박애순	권미숙
	헌금위원	한상익	김용진	이인웅	구명자	안정숙	백혜숙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대는 베드로(바위)이고, 그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문이 다시는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가장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베드로가 갖게 되었을 때, 안정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때, 그는 믿음과 힘의 바위가 되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크나큰 깨우침을 얻었을 때 우리들은 진실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영원한 대생명의 구현이기 때문에 나는 소유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소유하고,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내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바를 경험할 수 있다. 내 참된 자아는 바로 영원한 존재이다. 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신의 창조적인 부분, 즉 감정 속에 심을 수 있는 훌륭한 개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요, 유일하게 정확한 개념이다. 나의 내면에서, 나로서 구현될 하느님이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이고, 그 사실은 나에게 이렇게 믿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나는 내가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를 행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를 소유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성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달성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만일 그가 가치 있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따라서 나는 할 것이다!”

나에게 지능과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들이 무슨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정신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접한 상황은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무엇이며 누구이냐에 대한 인식과 우리들의 힘에 대한 도전에 가깝다.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큰 악 가운데 하나는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앞에 놓인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리는 두려움이다. 우리들이 마침내 자신을 무한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사용하는 무한한 대 생명력의 구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무한한 지능과 힘과 지도력에게 우리 의식의 길을 개방할 때, 우리들은 글자 그대로 ‘초인’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라는 이 단순한 진술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서 진실을 표현하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전체적인 관점과 경험을 바꿔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능과 힘이라고 믿어지는 우주의 창조적인 정신에 포함된 지능과 힘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것에 대항할 힘은 없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단 카스터, <<정신력의 기적>> 중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서로를 자기 안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과 짐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의 기쁨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몸 속에 아이를 가지듯 서로를 가집니다.

당신은 저의 전부

- 김현옥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매일 매순간 되풀이되는 질문!

그때마다 용감하게

“당신은 저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번도 저의 전부가 되어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

남에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면서

실상 제 자신이 불투명합니다.

목적을 잃고 고장난 배처럼 헤매지만

어둔 밤에도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신 주님!

지금 저는 제 자신과의 투쟁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방황하는

제 자신을 통째로 드립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세미나실** : 오랜 염원이던 세미나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감사 기도회를 드립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3. **전교인 수양회** : 전교인 수양회가 ‘녹색의 품으로’라는 주제 아래 열립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해놓으십시오.
 때 : 8월 6일부터 9일 곳 : 충주제일교회 기도원
4. **연합속회** : 7월 13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안디옥 속 식사준비 : 다메섹 속
5. **평화캠프** : 개척자들(Frontiers)을 통해 훈련받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과 한 달 동안 평화로운 삶을 나누기 위해 떠나는 젊은이들의 파송예배가 7월 13일 저녁 7시 30분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우리 교회는 에너지/물자 절약 시범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정해보십시오.

-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토요일방봉사(14일) : 유경순 박효선
-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윤여준 (생일)
- * 교회 사택으로 이사하신 오진훈 집사 노순옥 권사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